

Ⅲ. 고려의 등장과 발전

주제) 몽골의 침입과 원간섭기

학 교	
학 번	
이 름	

1. 고려와 몽골과의 만남

- 1) 고려에 침입한 ()의 잔존세력을 격퇴하는 과정을 몽골이 도움
- 2) 이후 고려가 몽골에 많은 공물을 보냈으나, 몽골의 공물에 대한 요구가 더 커짐
- 3) 이 과정에서 몽골의 사신이 고려 국경 지역에서 피살 → 몽골은 이에 대한 책임을 고려에 추궁

2. 고려와 몽골의 전쟁

※ 왼쪽의 그림을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붙여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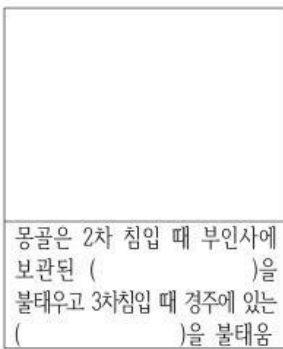
1차 침입 때 몽골의 침입을 막서, 김경손 등이 귀주성에서 막아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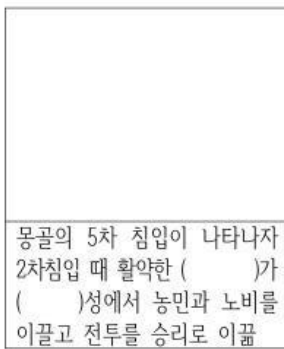
귀주성에서 저지당한 몽골군이 개경을 직접 공격하였으며 당시 집권자인 최우는 수도를 개경에서 ()로 옮겨 몽골에 항전



몽골이 다시 고려를 공격하였으며 (몽골의 2차침입) ()에 침입한 몽골군의 총사령관인 살리타를 ()가 사살.



몽골은 2차 침입 때 부인사에 보관된 ()을 불태우고 3차침입 때 경주에 있는 ()을 불태움



몽골의 5차 침입이 나타나자 2차침입 때 활약한 ()가 ()성에서 농민과 노비를 이끌고 전투를 승리로 이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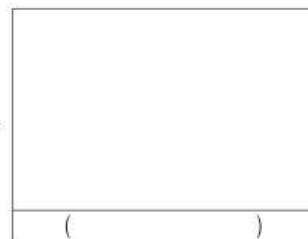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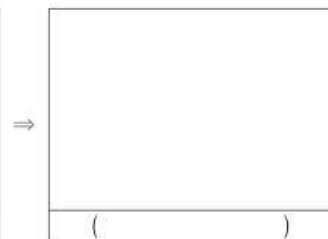


결국 최씨 무신정권이 몰락하고 고려가 몽골에 항복하면서 ()에서 개경으로 환도



3. ()의 항쟁

- 1) 원래 최씨 무신정권의 사병집단이나 최씨 무신정권이 무너지게 되면서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하여 몽골에 항전
- 2) 몽골이 수전에 약하다는 것을 알고 섬 지역으로 옮겨다니며 전투



- 3) 일본에 자신들의 항쟁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보내기도 함.
- 4) 이후 진압에 나선 (고려군 / 몽골군 /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에게 패하여 항복

※ 아래의 있는 그림을 일어난 순서대로 위에 붙여 봅시다.



4. 원나라 간섭기의 고려

1) 왕실, 관제 용어의 격하

① 왕실의 권위 약화

- ㉠ 왕들의 시호에 사용하는 조, 종을 금지, 모든 왕호는 ()으로 시작하도록 하고, 왕이라는 호칭을 사용.
- ㉡ 왕실 용어 격하(폐하 → 전하, 태자 → 세자)
- ㉢ 고려의 왕은 일정기간 원나라에서 거주하였으며, 원나라의 공주와 혼인

② 관제 용어 격하:

구분 \ 시기	몽골 침입 이전	몽골 침입 이후
왕실 용어	조, 종	충○왕
	폐하	전하
관제	중서문하성, 상서성	첨의부
	6부	4사

㉠ 2성 6부를 한 단계 낮추어 1부 4사 체제로 바꿈

- ㉡ 대부분의 기구의 기능이 약화되고, 용어가 격하되었으나 국방과 군사와 관련된 회의기구인 ()는 도평의사사로 개편되어 국정 전반을 다루는 회의기구로 기능이 강화되고 참여인원도 증가

③ 몽골의 복식, 풍습을 고려에 강요하면서 ()이 유행함

※ 아래의 그림을 보고 ③의 내용과 관련된 그림을 붙이고, 오른쪽에 해당하지 않는 그림을 버리시오.

--	--	--	--

※ 버리는 곳



④ 각종 관청 및 감시기구 설치

- ㉠ 고려의 내정을 감시하고, 고려의 내정에 간섭하기 위한 다루가치 파견

㉡ ()의 설치

- 원래는 원나라가 일본을 정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기구로 일본 정벌을 위한 군사와 물자 징발
- 2차례에 걸친 일본 정벌이 실패한 이후 계속해서 존재하며 고려의 내정간섭 기구로 변화

⑤ 영토의 상실



- ()
 - 현재의 평안북도 지역에 해당
 - 원나라의 군사적 거점으로 활용되다가 나중에 반납
- ()
 - 현재의 제주도 지역에 해당
 - 제주도의 자원을 착취하고,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역할 원나라의 해양 세력 확장을 위한 중요한 거점으로 나중에 반납
- ()
 - 쌍성총관부는 현재의 강원도 지역에 해당
 - 원나라의 군사적 작전과 관련된 중요한 거점으로 기능
 - 고려 ()때 무력으로 탈환

⑥ 각종 인적, 물적 자원의 수탈

- ㉠ 고려의 처녀와 남자들을 데리고 가 원나라 황실의 공녀나 환관으로 삼음

- ㉡ 고려의 특산물(금, 은, 인삼, 매(매를 잡기 위한 ()이라는 기구 운영)을 수탈

⑦ 당시 원나라 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권력을 유지하는 ()이 등장